임실치즈테마파크 한시적 유료화

10월 1일~11월 9일 국화 전시 기간 입장료 징수… 10월 6~12일 추석·축제 기간은 무료

가을 국화꽃 경관의 전국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임실치즈테마파크가 올가을 처음으로 한시적 유료 입장을 시행하는 가운데 임실N치즈축제 기간에는 무료 개방한다.

가을 국화꽃 경관의 전국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임실치즈테마파크가 올가을 처음으로 한시적 유료 입장을 시행하는 가운데 임실N치즈축제 기간에는 무료 개방한다.

임실군은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 국화 개화 및 전시 기간에 맞추어 임실치즈테마파크 입장료를 한시적으로 징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임실치즈테마파크는 매년 가을 천만송이 국화가 만개하는 장관을 연출하고, 유럽형 사계절 장미원까지 조성되며 한국 관광의 별에 선정,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입장료는 △성인 4,000원 △65세 이상 어르신 3,000원 △초·중·고 학생은 1,000원의 입장료가 부과된다.

임실군민은 무료입장이 가능하며, 미취학 아동, 관내 군부대 군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도 무료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추석 명절 및 임실N치즈축제 기간을 감안해 10월 6일부터 12일까지는 무료로 개방되어 더 많은 관광객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게 한다.

이번 한시적 유료화는 관광객들이 단순히 관광지에 머물다 가는 차원을 넘어 지역 내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관광지 관리 효율화와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결정됐다.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열리는 2025 임실N치즈축제는 △임실N글로벌치즈푸드페어 △숙성치즈 활용 맛있는 디저트 퐁뒤 체험 △국가대표 임실N치즈 대형 쌀피자 만들기 △저지종 원유 이용 프리미엄 숙성치즈와 성인 다이어트·뼈 건강에 좋은 무가당 요거트 시식 등 총 10개 분야 70여 개의 프로그램을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 "한시적 유료화를 통해 관광객들이 국화 생산과 유지관리, 관광지 환경정비에 기여하는 지역 상생 구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석과 임실N치즈축제 기간은 무료로 운영되니, 많이들 오셔서 가을날의 좋은 추억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의원들, 5분 자유발언 잇따라

파크골프 활성화 · 통합돌봄 체계 마련 등 제시

남원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김정현 의원은 파크골프는 단순한 노인 체육 활동의 범주를 넘어서 대한민국 전역에서 주목받는 생활체육이자 지역관광·경제 자원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직영 또는 공동체 협업 기반으로 전환 △관광자원과 연계한 복합 활용 전략 마련 △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편의시설 개선의 정책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인식 의원은 남원시가 저출생·고령화·청년 인구 유출이라는 심각한 인구 감소를 겪고 있어 스포츠마케팅은 이 문제의 해답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지리산을 활용한 특화 스포츠 행사 개발 △전국대회 확대와 전문 선수·동호회 참여 유도 △홍보와 미디어 전략 강화 △전문 스포츠 전지훈련 캠프 유치 등을 요청했다.

이숙자 의원은 초고령 사회에서 정책과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남원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돌봄서비스를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지내시도록 의료 서비스의 활성화 △예방중심의 스마트 돌봄서비스 도입 △개인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충족할 수 있도록 중심 역할을 하는 체계의 필요 △주거·교통 복지의 강화로 지역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통합돌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전북도청사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성황

임실군이 지난 23일 전북특별자치도청사 1층 로비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행사를 열고 도청 직원 및 내방객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와 임실군 알리기에 나서 성황을 이뤘다.

현장에서는 임실군청 홍보담당관 직원들이 적극 나서서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안내 △2025 임실 방문의 해 소개 △임실군 공식 SNS 홍보 △임실N치즈축제 홍보 등을 짜임새 있고, 다채롭게 진행됐다.

또한, 대표 답례품 시식·시음, 답례품 전시, 홍보 리플릿 배부 등으로 기부자와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었으며, 카드섹션 퍼포먼스, 현장 기부자 경품 증정, SNS 구독 이벤트 등 참여형 프로그램도 진행돼 활기찬 분위기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함께하며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노홍석 행정부지사, 박정규 도의원, 김형우 건설교통국장 등 전북도 주요 관계자와 도청 내 임실군 향우 직원 40여 명이 행사장을 찾아 응원했고, 임실군에서는 이진관 부군수가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한미화장품은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비타푸드 아시아K(Vitafoods Asia) 2025'에 참가해 남원 지리산 천연물을 활용한 자체 생산 K-뷰티 제품을 처음 선보였다.

남원산 천연 원료 활용 K-뷰티 첫 선

한미화장품, 비타푸드 아시아 참가해 자체 생산 제품 선보여

남원시는 아시아 최대규모 헬스케어 식품 박람회인 비타푸드 아시아 2025에서 남원산 천연 원료 활용한 세럼 2종 첫 선보이며 지리산 천연소재로 차별화된 K-뷰티 브랜드 '한국미인 오브한'을 론칭, 남원시와의 협력을 통해 'K-Material' 전략으로 수출 활로를 개척한다고 밝혔다.

한미화장품(대표 정명수)은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비타푸드 아시아(Vitafoods Asia) 2025'에 참가해 남원 지리산 천연물을 활용한 자체 생산 K-뷰티 제품을 처음 선보였다.

이번 전시회는 80개국 544개 기업이 참가하고, 1만 2천여 명의 참관객이 방문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건강 및 뷰티 박람회로 주목받았다.

한미화장품은 이번 박람회에서 자사 브랜드 '한국미인 오브한(OFHAN)'의 첫 제품인 △오브한 브라운라이스 브라이트닝 세럼 △오브한 아르테미시아 수딩 세럼 2종을 선보였으며, '한국미인 오브한' 브랜드는 한국의 자연에서 찾은 천연원료를 전통과 피부과학으로 재해석한 더마 코스메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지리산 자락 남원에서 유래한 쌀겨·저단선꽃·찔레꽃·복사나무꽃·산구절초 등 천연 소재를 담은 것이 특징이며, 백미와 같은 순백의 브라운라이스 브라이트닝 세럼은 트라넥삼산을 복합 처방해 피부톤 개선과 잡티 완화 효과를 갖춘 저자극 미백 세럼이며, 은은한 쑥향의 아르테미시아 수딩 세럼은 펩타이드 복합체를 함유해 피부 진정과 장벽 강화 효과를 제공한다.

특히, 이 제품들은 '2025년 남원시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개발되었으며, 한미화장품의 이번 박람회 참가는 남원시 천연물 기반 K-뷰티 제품으로, 글로벌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평가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군수와 함께하는 청렴토크' 성료

순창군은 지난 23일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군수와 함께하는 청렴토크'를 진행하며, 지난 7월부터 이어온 직급별 소통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3회차는 지난 7월 30일 8·9급 직원을 대상으로 한 1회차, 8월 22일 7급 직원을 대상으로 한 2회차에 이어 열렸으며, 1회차에서는 MZ세대 공무원들이 상사로부터 받는 불합리한 언행이나 회식문화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2회차에서는 7급 직원들이 생일 특별휴가 도입, 민원업무 교대근무 등 현실적인 건의사항을 제시했고, 일부는 군수의 지시에 따라 실제 정책 반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번 3회차에서는 6급 직원들이 참여해 부서 운영 과정에서 겪는 청렴 실천의 어려움과 구체적 대안을 허심탄회하게 나누었다.

실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앞선 1·2회차 참가자들은 행사에 대해 '매우 만족'과 '만족'을 90% 이상 응답했으며, 군수의 진솔한 소통을 가장 긍정적인 요소로 꼽았다. 또한 조직문화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는 답변도 90% 이상으로 나타나, 직급별 소통 방식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수도권서 추석 맞이 직거래장터 운영

남원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향의 맛과 온기를 담뿍 담은 농특산물을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선보인다.

남원시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는 9월 △24일 세종 제2청사 △25일 국회의사당 △서울광장(9.24~26) △오산시청(9.24~26) △강서구 마곡 광장(9.25~26) △성남시청(9.27~28) 등 주요 거점에서 열리는 직거래 장터를 열어 남원을 대표하는 13개 업체가 참여한 20여 품목의 신선하고 품질 좋은 지역 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남원의 대표 특산물인 김부각과 추어탕을 비롯해 전통주, 포도, 사과, 감정 등 좋은 환경에서 자란 제철 과일과 다양한 농식품들이 준비되어 있으며, 유통 단계를 줄인 직거래 방식으로 운영되어 수도권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고, 참여농가와 업체는 판로 확대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방청, 국회의사당 등 공공기관 직거래 장터 참여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의 협조로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될 전망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상하수도 비상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순창군이 추석 명절을 맞아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상하수도 비상대책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대책 종합상황실'은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하수도 관련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운영되며, 민원 접수는 물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통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순창군은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비상관정, 상하수도관로, 맨홀펌프장 등 약 100여 개의 상하수도 시설을 대상으로 9월 26일까지 2주간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8개소의 주요 배수지는 수위가 90% 이상 유지되도록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황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통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